

KEB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섹션

2022. 11. 14

서 정훈 연구위원

\*\*\*jh@hanafn.com

02.729.0195



# 주간 달러/원 동향(11/7-11/11) 및 전망

◀서울외환-USDSP-체결> 2022/10/31 종:1,421.10 ▼0.40 -0.03% 시:1,423.00 고:1,423.00 저:1,419.50

- 11.7일 1,401.2(-18.0): 중국 코로나 제한 완화 기대에 따른 위험선호 속 하락. 간밤 역외 환율 급락하자 장 초반 매수세 유입에 1413.5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중국 코로나 제한 해제 관련 위험선호 회복에 꾸준히 하락해 1399.6원까지 저점 낮춘 후 낙폭 일부 만회함
- 11.8일 1,384.9(-16.3): 중시 호조 속 급락. 미국 중간선거 기대감 및 중국 방역 완화 기대감에 1394원에서 하락 출발. 오전, 위안화 약세 전환과 역외 달러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시 상승폭 확대 속 1383.7원까지 저점 낮춤. 이후 1380원대 중반에서 좁은 등락 이어감
- 11.9일 1,364.8(-20.1): 달러 숏 베팅 확대에 하락. 미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기대감 속 1376원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결제 유입에 1380.3원까지 고점 높임. 이후 중시 상승폭 확대와 달러 숏 베팅에 1360.2원까지 급락 후 위안화 약세에 하단 제한되어 1360원대 초중반 등락 이어감.
- 11.10일 1,377.5(+12.7): 위험회피 확대 속 상승. 미 중간선거 민주당 예상 밖 선전 속 강달러에 상승 출발 후 네고 유입에 장초반 1361.5원까지 저점 낮춤. 이후 중시 낙폭 확대와 외인 순매도 확대 속 꾸준히 레벨 높여 1378.5원까지 고점 높임
- 11.11일 1,418.4(-59.1): CPI 호재와 중국 방역 완화 소식에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폭락. 간밤 CPI 서프라이즈에 1347.5원 급락 출발한 환율은 오전 외인 중시 순매수 확대 속 1330원대까지 급락함. 오후 중국 방역 완화 소식에 1312.5원까지 재차 급락함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달러-원은 중국 방역 완화 기대감 및 미 중간선거 공화당 승리 가능성에 급락. 중국 당국이 일시운항정지 규정 폐지하자 방역 완화 기대감 속 위험선호에 중시 외인 유입 확대되자 환율 낙폭을 키움. 또한 미 중간선거에서 양원 중 공화당이 최소 한 곳 승리 예상되자 민주당 부양책 제한에 따른 인플레이 및 미국 채권리 하락 기대가 달러 하락 재료로 작용함.
- 주 중반, 미 CPI 발표 하루 앞두고 위험회피 확대되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 밖 선전하자 달러-원은 반등
- 주 후반, 미 CPI 하락세 확인에 따른 글로벌 위험선호와 중시 외인 순매수 확대, 중국 방역 완화 발표(격리기간 축소 등)에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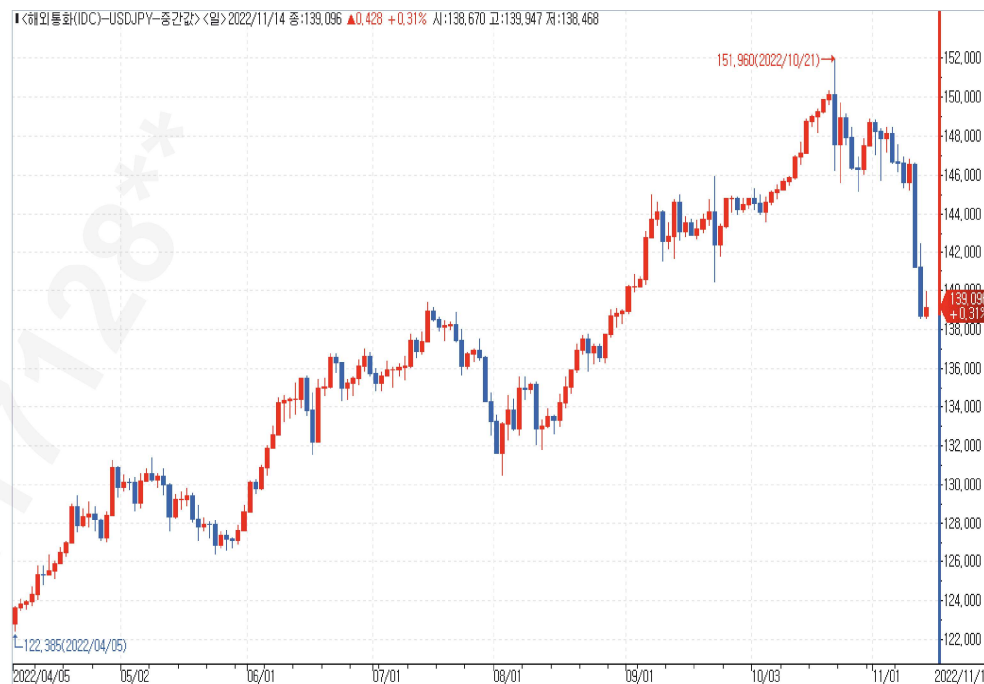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11.00	1,413.50	1,312.50	1,318.40	-100.80

## 달러/원 전망

- 금주 달러-원은 외인 배당금 지급, 전주 폭락에 따른 차익실현 속 지난주 급락분을 일부 되돌릴 것으로 보이며, 갑작스럽게 100원 낮아진 레벨에서 새로운 균형 찾는 가운데 변동성 예상됨. 15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배당금 역송금에 따른 달러 수요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지난주 CPI 발표로 인플레이 우려가 큰 폭 희석된 만큼 금주 연준 인사들 발언은 시장 영향력 크지 않을 듯.
- 다만 외인 중시 유입 확대와 공적기관들의 해외투자 계획 조정 등 개선된 국내 수급 여건 속 가파른 기술적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지난주 후반 중국 방역 완화 발표에 더해 금주 14-15일 예정된 G20 정상회의의 바이든-시진핑 회담에서 우호적 분위기 형성된다면 환율 하락 재료로 작용할 듯.

예상거래범위
1,300원 ~ 1,330원

# 엔·유로화 동향 (11/7~11/11)



## 유로화 동향

- 주초, 중국 제로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 관련 물밀 접촉 이슈 등에 따라 위험선호 강화되며 유로는 강세 출발. 이어 미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선전과 미 CPI 감소세 예상 등으로 강세 지속
- 중반 들어,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수성 예상으로 달러화가 강세 전환한 가운데 미 10월 CPI 경계감 강화 등으로 하락 전환
- 후반 들어, 미 10월 CPI가 시장예상보다 낮은 7.7% 증가에 그침에 따라 달러 가치는 급락하면서 유로 등 주요 통화는 강한 강세 흐름으로 전환 후, 주 후반에도 미 CPI 감소세 여진 이어지며 강세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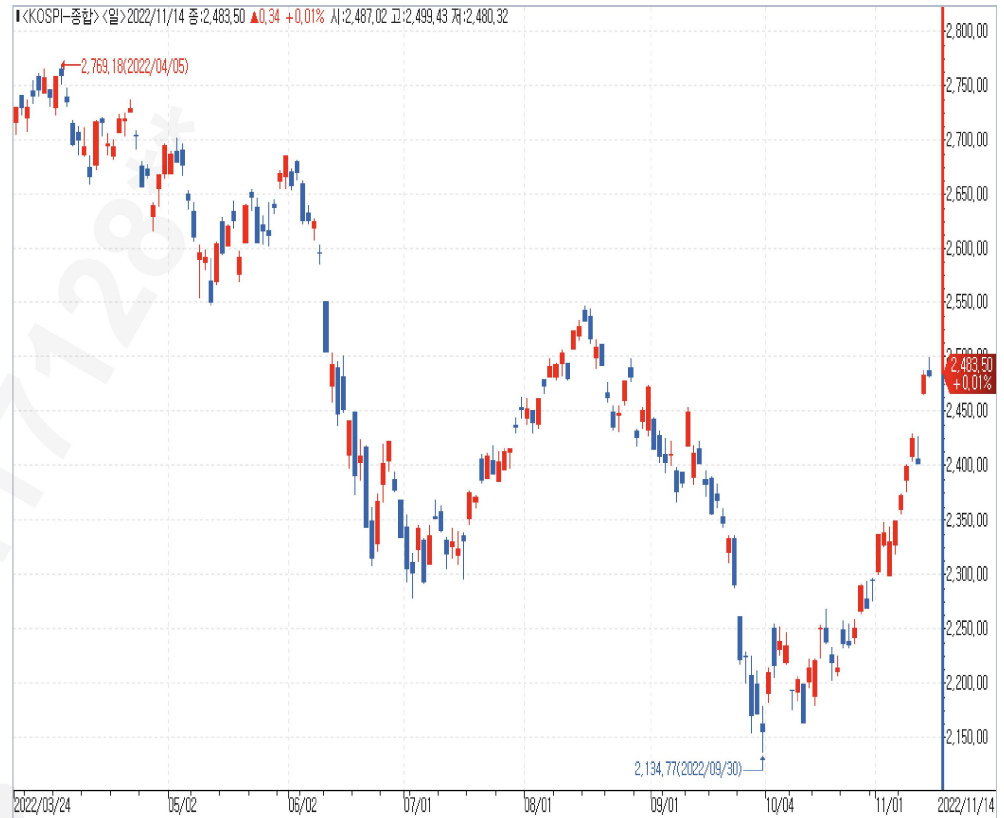
## 엔화 동향

- 주초, 중국의 방역완화 기대 속에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에 따른 달러 약세 전환 속 엔화는 강세 출발. 이어 미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선전과 미CPI 감소 기대 속 중국 영향에 의한 달러 약세 지속되며 강세 흐름 이어진 국면
- 중반 들어,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승리에 대한 경계감 확대와 10월 CPI에 대한 경계감에 따른 달러 강세 전환 속에 엔화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
- 후반 들어, 미 10월 CPI 감소 영향 반영되면서 엔화는 장중 141.17엔까지 떨어지는 초 강세를 보인 후, 주 후반에도 CPI 감소 여진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지는 국면 속에 엔화는 141엔대의 강세 흐름 속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0.9960	1.0365	0.9899	1.0357	+0.039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6.7	147.6	138.5	138.7	-7.99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11/7~11/11)



## 주간 국고채금리 동향

- 주 초반, 미 노동시장이 실업률의 소폭 상승에도 견조한 고용지표 개선에 상승 흐름으로 출발한 가운데 중국의 코로나 방역완화 기대도 물가 상승 자극요인으로 작용한 점이 국내외 금리 상승에 영향. 이어 국내 외환시장의 환율 하락이 호재로 인식된 가운데 홍콩생명 콜옵션 관련 이슈 완화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국고채 금리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선전과 달러/원 환율 하락이 국고채시장 호재로 작용하며 하락 추세 이어진 국면
- 후반 들어, 미 10월 CPI 경계감 강화 속에 가상자산 시장발 위험회피 강화로 하락 후, 주 후반, 미 10월 CPI가 시장 예상보다 낮은 7.7%를 기록함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소 기대 속 연준 속도조절 기대감 강화 등으로 급락하며 마감

##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10월 고용시장의 견조함에도 실업률이 3.7%로 상승함에 따른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감 속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로 상승 출발. 이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 반영되면서 상승 추세 이어진 양상
- 중반 들어, 통화시장에서 달러가 약세 전환한 가운데 연준의 긴축 속도 조절 기대 지속과 지정학적 갈등 해소 기대 등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 후반 들어, 미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 압승 실패에 대한 실망감 속에 미 10월 CPI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소폭 하락하며 2,400선을 방어한 후, 주 후반, 미 10월 CPI 상승세의 시장 예상 하회 및 중국의 제로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 전환하며 마감